# 농기계도 무인자동화시대 연다

## 농어촌공사 · 전남농기원 · 전남대 업무협약

## 총 400억 투입 나주 반남면 일원 시범단지 조성

농기계 무인자동화를 위한 시범단지가 전남 나주에 들어선다.

한국농어촌공사는 19일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전남대 무인자동화연구센터와 '첨단 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무인 육묘장, 무인자동화 농기계, 첨단농기계종합관리센터 등이 들어서는 첨단 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4차 산업혁명, 농업인구의 고령화 등 미래 농정에 맞춰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설계 및 시범단지 조성을, 전남도는 시범단지 운영을, 전남대는 통합제어 시스템 등을 구축하게 되며, 정기적인 협의회를 열어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해 나갈 방침이다.

총 400억원을 들여 나주시 반남면 일원 50ha(논 30ha, 밭 20ha)에 조성되는 이 사업은 2023년 완공을 목표로 11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2월에 세부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인식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스마트 농업은 농촌 고령화와 기후변화 등 농정변화에 대비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며 "첨단 무인자동화 농업생산단지 시범단지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각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전남농협, 나주역서 화훼류 소비촉진 위한 꽃 나눔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석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를 돕고 소비촉진 분위기 조성을 위해 19일 나주역에서 꽃 나눔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꽃 나눔 행사에 참석한 전남농협 임직원과 농협나주시지부(지부장 박내춘) 직원들은 장미꽃 1000송이를 준비해 열차 이용객들에게 무료로 나눠주며 화훼류 소비촉진을 권장했다.

농협은 또한 지역 농축협이 화훼류 소비촉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2월 말까지 꽃 나누기 프로모션을 실시해 전사적인 분위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를 돕고 소비촉진 분위기 조성을 위해 19일 나주역에서 꽃 나눔행사를 진행했다.

## 5·18 단체 "자정과 성찰 통해 시민 신뢰 회복하겠다"

### 광주시와 간담회 갖고 공동결의문 발표

### 이용섭 시장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 되길"

이용섭 광주시장이 19일 시청 3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오월 관련 단체 대표 간담회'에 참석해 공동 결의문 선언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영훈 5 · 18민주유공자유족회 회장, 이용섭 광주시장, 김이종 5 · 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장, 문흥식 5 · 18구속부상자회 회장

5·18 단체들이 19일 "5·18민주화운동을 더 이상 5·18단체만의 전유물로 인식하거나 단체만의 영예로 삼지 않고, 그 중심에 광주시민들께서 자리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선언했다.

(사)5·18민주유공자유족회, (사)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사)5·18구속부상자회 등 5·18 3단체는 19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광주시, 5·18기념재단, 오월어머니집 등과의 간담회에서 공동 결의문을 발표했다.

5월 3단체는 결의문에서 "5·18민주화운동은 광주시민 모두가 불의와 독재에 저항한 자랑스러운 역사이자 광주의 자긍심"이라며 "5·18은 국민의 생명과 기본권을 유린했던 불법적 공권력에 맞선 항쟁으로 광주시민의 의로운 항쟁이었고, 그 주체는 광주시민 모두였다"고 규정했다.

이어 "5·18에 대한 모든 기념사업의 주체 또한 광주시민"이라며 "기념사업에 광주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과 추진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제고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광주시가 고민해주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5·18단체는 완전히 거듭날 것이며 합법성과 도덕성을 회복하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광주시민들에게 진정한 예우를 받을 수 있는 그 순간까지 자정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5·18단체의 분열과 반목은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5월 3단체는 5·18단체협의회를 구성 · 운영하면서 도덕성과 합법성을 서로에게 다잡아 가겠다"고 밝혔다.

이용섭 시장은 이에 대해 "5월 3단체가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날까지 자정과 성찰을 통해 거듭나겠다는 결의를 표명해준 데 대해 뜨거운 박수와 감사를 보낸다"면서 "이제 과거의 5·18에서 미래의 5·18로, 광주의 5·18에서 세계의 5·18로, 울분과 분노의 5·18에서 승리와 축제의 5·18로 승화시켜 나가는데 앞장서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광주 동구, 대학 기숙사 방역 총력

광주 동구는 새 학기 외국 유학생 입국을 앞두고 대학 기숙사 방역을 실시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동구는 전날 비상방역대책반을 투입해 조선대학교, 조선이공대 기숙사 생활관 내 · 외부 방역소독을 실시했다. 학교와 일정협의를 거쳐 신학기 등교가 시작되는 지역 내 초 · 중 · 고등학교에도 방역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전통시장인 남광주 · 대인 · 산수시장에도 지난 14 · 18일 두 차례에 걸쳐 마스크, 손 세정제 등을 배부하고 시장영업이 끝나는 오후 9시부터 방역활동을 펼쳤다.

## 서구,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살리기 나서

광주 서구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및 중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특별방역을 실시하는 한편, 3월 한달간 공직자들이 전통시장을 집중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전통시장 식당 이용 및 온누리상품권 장보기 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운영 ▲마케팅 ▲세무 ▲회계 등 분야별 컨설팅을 실시하는 희망길라잡이 사업도 운영한다.

## 남구, '런치타임' 등 코로나-19 한시 시책 추진

광주 남구는 19일 "코로나-19 영향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구청 내 모든 부서에서 주 1회 이상 전통시장을 방문해 점심을 해결하는 '런치 타임' 등 경제 활성화 시책을 한시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남구에 따르면 이번 경제 활성화 시책은 코로나-19 여파가 종료될 때까지 진행된다.

이에 따라 남구는 구청 내 32개 부서와 16개동 행정복지센터 등 모든 조직에 각 부서별 서민경제 활성화 후원시장을 지정, 관내 봉선시장과 무등시장, 백운시장 등 전통시장 3곳에서 주 1회 이상 런치 타임을 진행하기로 했다.

## 북구, 취약계층 주거안정 집수리 사업 추진

광주 북구는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수선유지급여 사업', '행복둥지 사랑의 집수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북구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함께 하는 수선유지급여 사업은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 거주자를 대상으로 소득이나 주택 노후도 등을 고려해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구는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위 · 수탁 협약을 맺고 올해 총 사업비 9억원으로 주거급여 수급자 152세대에 주택 개 · 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도배, 장판 등) 457만원, 중보수(창호, 난방공사 등) 849만원, 대보수(지붕, 욕실개량 등) 1241만원까지 지원하고 장애인과 고령자는 최대 380만원까지 추가 지원한다.

## 비아청년회, 돌봄 이웃 대학입학생 장학금 전달

19일 광주 광산구 비아청년회(회장 박익성)가 돌봄 이웃 가정 대학입학생 3명에게 30만원씩을 전달했다.

박익성 비아청년회장은 전달식에서 "십시일반으로 모은 회원들의 회비로 청년의 미래를 응원하기 위해 나섰고, 장학생들이 지역을 사랑하는 시민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비아청년회는 어르신 보행보조기, 학생 긴급 교복비, 지역아동센터 해외여행 지원 등 지역사회 돌봄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임형택 기자

■ 세무기장 · 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 우 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